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01/02월호
2021

HAPPY NEW YEAR



Image by Suki Kim

CONTENTS

한인회 한인회소식 전 한인회장 민명희:2	수필 그는 백조였다! 나정자 :13
신임한인회장인사 NM 한인여러분! 윤태자 : 3	수필 전자 산업만이..살길이라고.. 김준호 : 14
한국학교소식 한국학교소식 이수신 : 4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12) 이상목 : 16
지역소식 COVID-19 예방주사 예약 : 5	선교 아프카니스탄 선교사의 편지 조성현:18
한인사회 민화전시회를 준비하며 김숙희 :6	생활상식 2021년 준비해야 할 3가지 이한주:20
국내소식 하늘나라로 ... 척예거 조종사 : 7	사진미술 앤설애덤스의 뉴멕시코사진 이경화 :21
칼럼 영적 도약의 해 나정용 :8	지역소식 넷플릭스 스튜디오 확장 계획 발표 : 22
칼럼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김기천 :9	광고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23
칼럼 2021년 산위의 동네를 꿈꾸며 김민순:10	광고 알버커키 한인업소 :24
수필 두레 이정길: 11	광고 뉴멕시코 한인업소 :25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민명희

전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18대 한인회 인수인계가 19대 한인회 회장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01/02/21 10:00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18대 한인회를 끝내고 새해와 함께 희망찬 기대를 해보면서 바톤을 19 대 한인회로 넘겼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것이라 믿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녁노을이 종소리로 울릴 때, 나는 비로소 땀이 노동이 되고, 눈물이 사랑이 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로 시작하는 이 시는 이어령 시인의 것입니다.

“내일 해가 다시 뜨려면 바다의 침묵이 있어야 하고, 내일 해가 다시 뜨려면 날마다 저녁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인수인계 항목

1. 한인회 업무 관련

-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Nonprofit Corporate Report
- * 한인회원 명부 (2020년 18대 선관위 작성) 및 이전 한인회 (~16대) 업무 인수 인계서류
- * 한인회 웹사이트 및 이메일 관리자 계정

2. 한인회 재무 관련

- * 한인회 재무 보고서(2019, 2020), 책북 및 은행 잔고
- * 한국학교 재무 보고서, 감사 보고서 (2019, 2020) 책북 및 은행 잔고.
- * 어버이회 재무 보고서, 감사 보고서 (2019,

2020) 책북 및 잔고

3. 한인회 감사 관련

- * 한인회/ 어버이회 / 한국학교 재무 감사 보고서 (2019, 2020) 및 영수증

4. 한인회 물품현황 (18대 한인회기 중)

- * 구매물품- 정문 방법 철창, 블라인드, 프로젝트, 냉장고 2대
- * 도난 물품- 야외텐트 1개, 스피커 1개, 행사용 대형 부엌기구

5. 기타사항

- * 2차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신청 (2020 12월 18일경 문의-문만길 Accountant)
- * Insurance Claim (건물 지붕 고침과 부엌 천장 수리, 한인회 입구 유리문 파손, 한인회 입구 벽 파손) 관련 수리에 필요한 서류 신청 접수와 함께 일부 보상 진행중 2020년 12월)
- *수도요금 크레딧 관련 보고 (Water Utility Dept from City of Albuquerque)

업무 인수인계서

인수자: 윤태자

인계자: 민명희

입회자: 정대식, 이영혜

SKFW: 01/02/2021 오전 11:00시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1 신축년에 교민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장으로 일하게 된
윤태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의 유권자 등록을 보면서 해가
지날수록 한인회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대는 단일후보라 투표 없이 이루어졌지만
신뢰로 인정받는 한인회
친목을 도모하는 한인회
미래를 추구하는 한인회로 임원진과 이사진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교민들의 호응에 보답하겠습니다.
한인회 역시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행사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지만 주 정부 방침을 따르며 최선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국을 떠나 미국에 사는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를
포함한 모든 한인 교민을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함께
정을 나누며 한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슴치
마시고 임원진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에는 전임 신임 임원진이 회관에 모여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한인회 \$9582.54, 한국학교 \$8825.08, 어버이회 \$731.59
달러를 인계받아 은행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은 19대 한인회에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은 행사가 없을
것이며 함께 다시 모일 날을 위하여 한인회관을 정리하고
수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버이회 회원들께는 1월부터 매달 2회 한국 음식을 To
go 형식으로 전해드리고 전화 연락망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긴밀히 교류할 것입니다.

한국학교는 새 교장 선생님께서 행정업무를 맡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한인회 임원들은 교민들 의견을 듣고 참작하면서
꾸려나가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루속히 모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며 교민들의
모습을 밝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며 이야기꽃을 피울
그때를 기다리며 새해 인사를 마칩니다.

뉴멕시코 19대
한인회장 윤태자 올림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한국학교소식

뉴 멕시코 한인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학년도 부터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하게된 이수신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인 가정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 상황이 종료 될때까지 비

대면 방식인 zoom class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해지면 한국문화, 예절, 예술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할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2021 년 뉴멕시코 한국학교 봄학기 온라인 수업 안내

세종어제준민정호
나맛알삼미통견정하
문짜와로쓰스모다아니
홍씨이권전조로오린전
성이니르고정홍배이선도
무출내제쓰들시러퍼디문
호노미하나라내이물위하
아오영미전전조로스들
트레드네이.나간제하
이수신교장.이수신교장
한.의.수.신.교.장.이.수.신.교.장

수업일정: 2021 년 1 월 30 일 토요일 ~ 2021 년 5 월 1 일 토요일

접수방법: www.nmkorean.org 에서 사전접수합니다. 등록시 희망하시는
반을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대상: 만 4 세 이상

등록일: 뉴멕시코 한인회관 1 월 30 일 토요일 12 시부터 3 시까지

반: 아동 1 반 (유지부 ~ 조 2) - 주 2 회 수업
아동 2 반 (조 3 ~ 5) 주 2 회 수업
중.고등반 - 주 1 회 수업
성인반 - 주 1 회 수업

수업료: 아동 1 반, 아동 2 반 - \$200 (불제자녀이상 \$180)
중.고등반, 성인반 - \$150 (기존학생 \$135)

문의: 이수신 교장, tredonenm@gmail.com or 505-515-4677

온라인수업안내사항: 온라인실시간화상수업은 Zoom 으로 이루어지고
수업과 관련된 자료,평가, 결과 관리는 Goggle Classroom 으로
이루어지오니, 학생들은 Gmail 이메일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소식

COVID-19 예방 주사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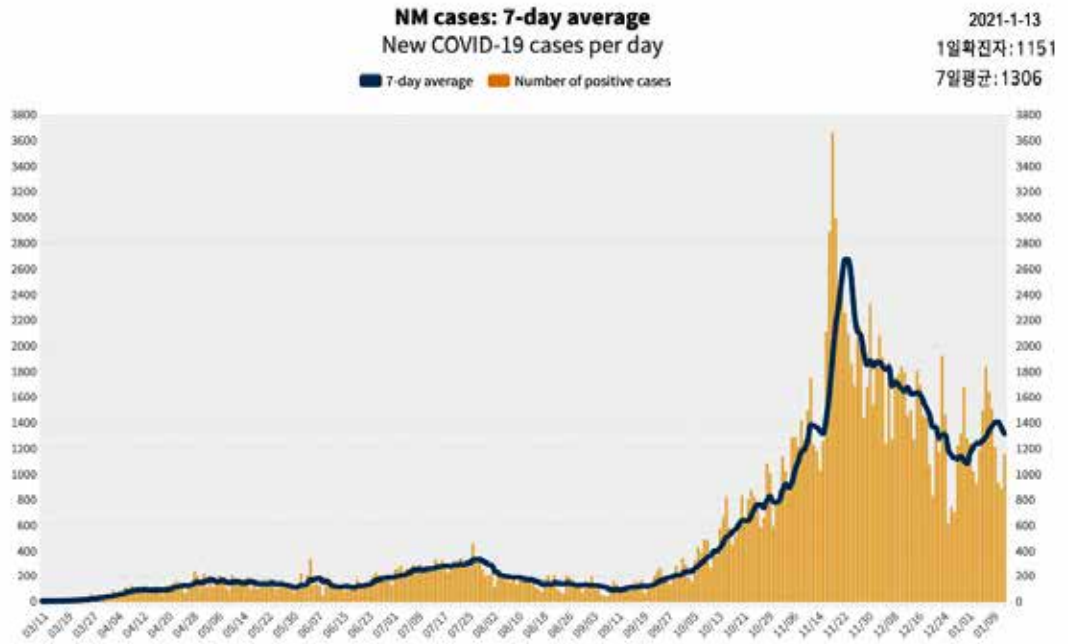
뉴멕시코 주 정부의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백신 접종 온라인 사전 등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백신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cvvaccine.nmhealth.org 이다.

주정부 보건부의 코비드-19 백신 접종 예약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해 두면 추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때 접종 가능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통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병원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이미 접종이 완료되었고 1월중순에는 연로한 일반인에게도 접종이 시작되어 한인들 중에도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1월13일 현재의 뉴멕시코의 코비드-19 확진자 통계를 보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수준에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지역소식

민화 전시회를 준비하며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은 오랜 기간 동안 저의 삶의 화두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또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늘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의 환경은 저의 고정되었던 사고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통한 많은 경험들로 인해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선호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열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버님의 단호한 반대로 인해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림에 대한 열정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엘버커키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흙의 색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과도 같이 붉은색의 다양한. 하늘과 땅이 묘하게 조화를 뽐내면서 그들의 색깔을 발산하는 곳. 자연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어져 갈 무렵, 민화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반대 한 마디에 접었던 작은 꿈이 저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이곳 사람들에게 민화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민화 전시회. COVID-19로 인해 세상이 단절된 그즈음, 민화를 통해 저의 잃어버렸던 꿈과 그리고 삶의 해답을 동시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월오봉도의 소개와 함께 저의 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월 오봉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그의 나라가



전시회 준비를 마친 김숙희씨 가족: 남편:박찬영(한인회 이사장(전), 사무라이식당 사장) 장남:박준모 차남:박준범

김숙희
(Suki Kim)



영원하길 염원하면서 전국의 유명한 산을 찾아 기도하고 도화서의 화가에게 일월오봉도를 그리게 했다. 항상 왕의 뒤에 위치 해 그 기운이 미치게 만들었고 죽을 때 또한 같이 묻혔다고 한다. 이 그림의 완성은 왕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마무리된다고 한다.

편집자 주: 김숙희 민화 전시회는 지난 12월15일 Samurai Gril & Sushi Bar(9500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식당에서 30여점의 작품으로 열었다. 이번호 광야의 소리 표지 그림은 전시되었던 작품중 하나이다. 전시되었던 그림중에서 10점 정도는 사무라이 식당 내에 계속 전시 되고있다. 김숙희씨는 뉴멕시코 한인회의 재무담당으로 지난 2년간 봉사하기도 했다. 앞으로 2차 민화전시회도 계획 중인데 아직 장소와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약10개월 정도 작품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2차 전시회에 내어놓 작품들은 모두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실용품들을 표현한 그림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김숙희씨는 그의 포부를 전했다.



국내소식

하늘 나라로 날라간 척 예거 조종사

인간이 음속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시절.
온몸이 찢겨질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으며
인류 최초로 음속의 벽을 돌파한 척 예거.
전세계 파일럿들의 우상.
또 하나의 전설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음속을 넘어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태풍도 바람도
없었다.
고요한 우주에서 푸른 별 지구를 바라보는 광경은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다웠다.
진정한 장벽은 창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존재하는 것이다.”
척 예거(Chuck Yeager) (1923 - 2020)

위의 글은 알버커키에서 살다가 일리노이주 Bradley University 교수로 직장을 옮긴 조한철 교수의 페이스북에 올린 척 예거에 관한 글이다. 그의 글은 마치 장례식에서 듣는 조시 같은 기분이 든다. 저자의 허락을 받아 그의 글을 퍼서 옮긴 것이다.

1947년 세계 최초로 음속의 벽을 돌파한 조종사 척 예거(Chuck Yeager)가 지난 12월 7일 향년 97세로 생을 마감했다. 1941년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한 이후 세계 2차 대전에 항공기 정비병으로 참전했고 조종사로 지원해서 전투기 'P-51 머스탱' 조종사가 되어 전투에 참여했다. Bell X-1 로켓비행기를 타고 음속을 처음 돌파한 기록을 세운 테스트 파일럿으로 유명해 졌고 공군에서 원 스타 준장으로 척 예거는 1975년 퇴역했다. 그 후에도 공군을 위해 년 1불의 보수를 받고 자문 활동을 했다.

그는 9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며 후진을 격려했다. 2019년9월20일 페이스북을 보니 1953년 9월21일 서울 김포



공항에 가서 이북에서 노금석 조종사가 몰고 월남한 MiG-15 전투기를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 다녀온 얘기를 실었다. MiG-15는 그 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옮긴 후 철저히 테스트 하는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 테스트 비행결과 아마도 비행기를 만든 소련사람보다 미국측이 더 이 비행기를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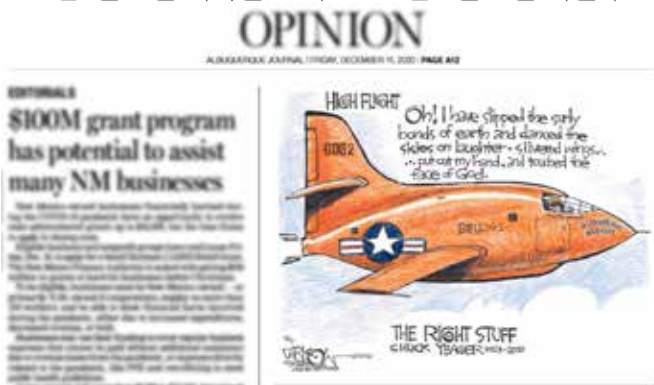
알버커키 저널 12월11일자 신문 사설 면에 척예거를 기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High Flight라는 제목의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서 장식했다. 이 시는 1941년 영국에서 비행사고로 사망한 캐나다 조종사 John Gillespie Magee Jr가 쓴 시이다. 그는 성공회 선교사의 아들이었는데 2차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으로 파병되어 비행 연습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시에는 조종사로서 하늘을 나는 기쁨이 차 있고 이시는 항공 비행사고시에 조사로 잘 인용된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폭발되어 7명의 우주인이 참사했을 때 레간 대통령은 그들을 기리는 조사에서 이 시의 부분을 낭독했었고 알링턴 묘지에 세워진 기념비에 이 시 전문이 새겨져 있다. 아래에 High Flight시의 앞부분과 끝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소개 한다.

고공 비행 (High Flight)

아, 드디어 이제 나는 땅의 매임에서 풀려나와
깁깁 웃어대는 은빛 날개를 타고 하늘에서 춤추고 있네
해를 향해 올라가 텀블링의 환희에 함께 했네
해가 갈라놓은 수많은 구름들과 함께
.....중략.....

높이 나는 종달새나 독수리도 올 수 없는 이 높은 곳
너무나 고요한 이곳에 뜨거운 가슴으로 올라왔네
그 누구도 와 보지 못한 이 높은 하늘의 고결함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얼굴을 만졌네.

(글: 편집부 이경화)



영적 도약의 해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돌아보기에도 속상하고 끔찍한 2020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무참히 휘둘린 지가 족히 한 해가 되었습니다.

“끔찍했다”라는 말로 다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깨면 현재의 생존을 위협하듯 예서 제서 죽었고 죽었고 또 죽었고... 황당한 ‘오늘의 사망자 합계’ 가, 마치 뉴스의 전부인 양 쏟아지던 “끔찍한” 한 해였으니까요. 과연 산 자와 망자와의 거리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헛갈려집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은퇴 노인 아파트에서도 한번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면 그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펍펍 스러져 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였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기에 시사주간지 TIME지에서도 2020년도를 ‘The Worst Year Ever’라 칭하면서 이로 인해 신경과민과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미국인이 전체인구의 2/3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무서운 교만 속에서 안일한 신앙만 자리 잡아 가고 있었던 ‘나’, 성장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결국은 육신을 쫓고 마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나’, 마치 쇠 발바닥같이 무디어져서 아무리 찢어도 아픔을 모르는 상태에 매어져 있던 ‘나’, 아니 편안한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환자 같았던 ‘나’를 코로나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바야흐로 2021년, 새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영적 도약입니다. 이 도약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 대신 다른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간절한 갈망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미지의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출렁이는 대서양을 일엽편주 May Flower 호에 그 목적을 싣고, 목숨 다해 구하고 찾고 애타게 문을 두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구해야 할 사명자들 입니다. 주님께로 오지도 않고,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는 커녕 원하거나 듣지도 않아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알려야 할 사명자 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간절히 원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 속으로만 들어와 내면화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 진리를 위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며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훈련을 받으며 지혜의 말씀으로 성장합시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 머물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기독교는 공허한 관념의 ‘종교’ 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힘찬 도약을 위해 2021년,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2020년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 전염병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옆에 애리조나 주의 코로나 감염 환자가 세계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도 코로나 전염병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되어야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사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들려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정신과 분야에서 “의미 요법 (Logotherapy)”을 주창한 프랑클(Viktor Frankl)입니다. 프랑클은 1905년 3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40년부터 42년까지 Rothschild Hospital에서 신경학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클의 가족 부모 친척들은 모두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정책에 의해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프랑클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포함해 4군데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프랑클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악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용소에 들어서자 수용소 경비병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경비병의 지시에 따라 프랑클은 오른쪽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왼편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비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고 표시된 건물로 들여보냈지요. 목욕탕 문이 닫힌 후에는 독가스를 살포해서 모두 죽였습니다. 나중에야 프랑클은 왼편에 섰던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져 즉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 가운데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치 경비병들은 수용소 포로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고압전류를 연결시켜놓았지요.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는 사람 중에는 담장으로 달려가 철조망을 붙잡고 감전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프랑클은 총살을 당해 죽어가는 동료들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인간 이하로 취급당하면서 공포 가운데 신음하는 동료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프랑클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오히려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했지요. 강제 수용소는 프랑클이 변화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프랑클은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희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프랑클이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본 나이가 든 한 수용소 동료는 프랑클에게 찾아와 프랑클의 웃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프랑클에게 독가스실로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의 가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프랑클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비엔나로 돌아와서 수용소에서 관찰했던 자신의 기록을 근거로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프랑클은 인간이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에 의해 자극을 받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프랑클은 인간이란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프랑클은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지만 2021년 새해에 우리 마음과 태도를 희망적으로 바꾸어 모두 승리합시다. 올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2021년은 ‘산 위의 동네’ (A city on a hill)를 꿈꾸며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 (A City Upon A Hill)라는 인상적인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낸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아니라, 1630년 3월 영국에서 아르벨라호(Arbella)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비분리주의 청교도들의 강력한 비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위한 출발 예배에서 존 코튼(John Cotton) 목사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대륙에 도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 보는 “언덕 위의 도시”같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축복하며 파송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하기 전에 아벨라르호 선상에서 지도자 존 윈스롭(John Winthrop)도 “기독교 자비의 모델(A Model of Christian Charity)에서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로 세워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얼마나 멋진 이상이요 비전입니까?

언덕 위의 도시는 그냥 비전과 구호만이 아니라 언덕 위의 도시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개인언약과 교회언약, 그리고 사회언약의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의 개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인언약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려했습니다. 둘째는 교회언약을 맺어 개인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 묶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회언약을 맺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임을 강조한 그들의 비전이 오늘날 미국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초기 청교도들의 언덕 위의 도시라는 비전은 마태복음 5장 13-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A city on a hill)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우리 알버커키 지역과 비슷합니다. 저 멀리 로스 루나스, 리오 랜초에서도 보이는 산디아 산을 보면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서 샌디아 산에 있는 집들을 보면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 지역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도 보이는 저 빛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누굴까 궁금합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느 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몹시 궁금한 저 언덕 위의 도시, 산 위의 동네같은 빛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3가지 단어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집 안의 등불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집안의 등불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뉴 멕시코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뉴 멕시코에서 알버커키에서 리오랜초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를 우리 지역에 두신 이유는 우리 지역의 소금처럼, 빛처럼, 등불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빛은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 안의 등불은 집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소금과 빛과 등불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세상의 빛은 세상을 비추고, 등불은 가정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는

<12페이지로 계속>

수필



두레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내가 살던 시골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대문밖으로 나가 왼쪽으로 가면 길 양쪽이 바로 논이었다. 조금 더 가자면 시내가 나오고, 시내의 언덕길을 걸어가면 곧 이어 가래논이 나왔다. 우리 가래논은 여덟 마지기 한 배미로 근동에서 가장 길고 큰 논이었다. 그 때는 변변한 저수지도 없는데다가 하천의 기능도 보잘것없어서 농사 짓기에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논 귀퉁이에 커다란 못을 마련해 두고 날이 가물면 ‘두레’로 물을 퍼서 논에 부어야 했다.

두레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 언덕 진 높은 곳의 논이나 밭에 붓는 나무로 된 기구다. 가벼운 오동나무나 소나무 판자로 위는 넓게 그리고 밑바닥은 좁게 네 귀퉁이를 만들고, 귀퉁이에 각각 줄을 매단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줄을 잡고 동시에 좌우로 움직여 물을 푸는 일을 두레질이라고 하며, 그 일은 실한 일꾼들의 몫이었다. 협동 생활은 농민들의 생존 조건이었으며, 힘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것이 농사였다. 그런 농사일 중에서도 두레질은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의 완전한 조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집에는 우물이 있었다. 땅 밑은 돌로 둥글게 쌓고, 땅 위는 네모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우물이었다. 두 길이 넘는 그 우물은 앞뒷집이 양쪽에서 함께 쓰는 샘이었다.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에 쓰는 ‘두레박’은 모양새는 두레와 비슷했지만 크기가 작았다.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인 바가지는 본래 한 해 살이 덩굴풀의 열매인 박을 쪼개어 만든 것으로, 줄여서 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두레박은 두레에 박을 붙여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에는 소나무를 뒷박처럼 파거나 양철 또는 판자를 짜서 두레박을 만들어 썼지만, 나중에는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었다. 바닥이 좁아야 물

위에서 쉽게 쓰러져 물을 푸기가 편하기 때문에 두레박의 밑바닥은 좁다. 긴 줄을 매달아 쓰는 두레박은 어두운 우물을 오르내리는 중에 돌에 부딪쳐 망가지고는 했다. 시원한 우물물로 목물을 하면 한더위 여름 밤에 곤히 잠들 수 있었다.

지금은 두레나 두레박이 거의 쓰이지 않아 박물관에서나 실물을 볼 수 있고, 우리말 대사전에 나오는 그림으로나 그 형상을 짐작할 수 있다. 두레박을 떠올리면 오래 전에 페르시아의 시인이 쓴 시가 생각나는 것은, 나도 삶에 따르기 마련인 신고를 겪은 탓이라.

물을 가득 담고
어두운 우물에서 끌려 올라와
밝은 빛 속으로 들어 올려지는
두레박이 되어라. (루미)

단어 ‘두레’는 기구의 이름 외에 다른 뜻으로도 널리 쓰였다. 농민들의 일상 생활에 매우 긴요한 협동이나 상부 상조 정신이,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레질의 특수성과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두레를 짜서 하는 농사일을 두렛일이라고 불렀으며, 두렛날을 정해 두고 두렛일을 했다. 두레에 참여하는 농군은 두레꾼이었고, 농사철 두렛일을 할 때 벌이는 농악은 두레굿이었다. ‘두레 먹다’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다 또는 음식을 장만하고 농군들이 모여 놀다라는 말이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큰 상은 두레상이었다.

마을에서 어떤 일을 경영하고자 할 때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레패를 짜서 각처로 돌아다니며 풍악을 치고 돈이나 곡식을 얻기도 했다. 신라 이후부터 전래되는 두레삼 (또는 두레 길쌈 놀이)은 부녀자의 풍속의 하나로 각 부락의 부녀자들이 음력 7월 15일부터

<12페이지로 계속>

<11 페이지 '두레' 에서 계속>

매일 저녁에 차례로 집을 옮겨 가며 하는 길쌈이었는데,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곤을 덜 느끼려고 여럿이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놀이처럼 하는 일이었다.

옛날의 농민들은 마을이나 부락 단위로 공동 노동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이름에 두레를 덧붙여 썼다. 협동과 친목을 아울러 도모하는 지혜였던 것이다. 지금은 신앙 · 근로 · 군사 · 도의 · 공제 · 경기 · 회사 등의 이름 앞에 두레가 붙어 있는 것을 본다. 우리의 오랜 농경 문화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단체들이 잘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다.

날이 가물면 사용되고는 하던 두레는 저수지가 만들어져 물 걱정 없이 농사짓게 되고 토지의 소유 형태가 바뀌면서 점차 쓸모가 줄었다. 그래도 용처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니, 물고기를 잡는 데에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다. 우리 논외 귀퉁이에 있던 못은 땅에서 솟은 물로 항상 그득해서 물고기들의 세상이었다. 해마다 벼를 거둬들이고 나면 으레 두레로 못의 물을 퍼내고, 살진 붕어 · 잉어 · 메기 · 가물치 등을 바깥에 가득 담고는 했다.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이 가끔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10페이지 '산위의 동네를 꿈꾸며' 에서 계속>

어떻게 잔맛을 드러내는 소금으로 빛으로 등불로 살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대화하며 받은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도 비추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의 형님 아론도 알고 온 이스라엘 자손도 다 보았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짠 맛을 내며,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빛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빛이 있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빛 중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지만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빛이 계십니다. 이 참 빛에 가까이 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점점 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예배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참 빛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받는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많아집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빛된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입니다. 작은 모닥불 하나는 세상에 큰 영향력이 없지만, 작은 모닥불이 모이고 모이면 커다란 횃불이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빛은 점점 작아집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교제가 왕성하면 할수록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게되고 점점 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강해집니다.

셋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사야 42장 6-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되기를 거부하면 온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은 너무나 어두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 지역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갈등하고 싸우다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고 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면 어두운 세상은 다시 빛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역에 빛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년을 더 연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환하게 비추는 등불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직장와 사업터,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짠 맛나는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알버커키의 산 위의 동네로 우리 도시를 환하게 밝게 비추어 줍시다.

수필

그는 백조였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그는 백조였다!

세상엔 부패해서 썩어 없어지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정신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그 망각이라는 게 영영 아주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적당히, 썩지 않을 만큼 세월이라는 소금을 쳐 놓은 상태- 뭐 그 정도인 것일까?

예사롭게 살다가도 어떤 때는 부르던 찬송가 한 소절에도 울컥 목이 메이곤 하니, 그건 아마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터지는 아픔, 애통함, 서러움, 그리움 그런 것들 때문일 게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선가 부 터 거부당한 것 같은 괴롭고 섭섭한 기억들이 싹 못 죽고 종종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럴지라도 그 섭섭한 것 중 어느 것 하나 세월이란 소금에 절여지지 않고 노다지 생생하게 살아서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소화제 먹듯이 우리는 “세월이 약이다”라는 처방으로 소화 안 되는 아픔들을 미루어 놓고 그림자처럼 다시 일어나곤 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약이 세월이라는 것이다. 세월이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잊게 된다는 말이다.

살면서 일부러 돌아보지 않으면 어디만큼 가 버렸는지... 세월 따라 흘러간 사연들은 기억이 희미해지다가 잊혀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 그렇게 세월을 약 삼아 살다 보니 그대로 그 세월이 명약이 된 것이었구나 싶다.

그렇지라도 어떤 때는 그런 사연들이 재주 좋은 재담꾼이나 글쟁이들의 손에 잡혀서 살이 붙고 단장도 하여 새 무대에 나타나면 그 집안, 그 동네 내력이 되고 때로는 대하드라마로 살아나서 우리로 역사라는 대제로 다시 세월을 반추해 보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우 간에 잘 대면하여 만나보지 못하니, 우리 교회 75세 이상 되는 사라여선교회에서는

카톡 교제 망이 바쁘게 움직인다. 소식은 물론 일종의 몽학선생처럼 생활 시행 지침이나 정보 알림 등 교육 프로그램까지가 아침 8시 부터 등장이다. 아래에 소개되는 얘기는 그런 것들 중의 하나로 나름대로 고민하며 땀 흘렸던 세월을 진단해 보게 한다.

때는 2019년. 스페인 발렌시아의 요양원. 한 치매 노인에게 음악이 들려진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였다. 1960년부터 뉴욕 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마르타 곤잘레스.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자 그의 손이, 흰체어에 늘어져 있던 그의 팔이 백조의 날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날개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치매 노인은 다시 여주인공 오데타다. 삶을 불태우던 무대에 다시 섰듯 화려한 날개짓으로 슬프도록 일그러진 얼굴에 발레리나의 섬세한 표정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고요하던 치매 노인의 귀 언저리에 그의 삶을 장악했던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들리자 요양원이 백조의 호수가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지라도 어떻게 그 찬란하고 숨소리 누르던 백조의 무대가 지워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단 말일까! 2019년, 50년만에, 참으로 50년만에! 축 늘어져 있던 날개를 화알짝 펴서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치매를 비웃는듯 마르타는 하늘로 떠났다.

마르타 곤잘레스!
그의 마지막 공연에 몽클한 가슴을 쓰다듬다 보니, 나는 그저 얼마나 쉽게 나를 제한하고 멈추었던가...마르타의 날개짓따라 때늦은 유감들이 살아난다. 그렇지라도 이제 다 희어진 나이다. 새삼 날개짓을 한다는 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벽두에 마르타의 공연을 보게 하신 것이 혹 “나는 너를 잡고 있던 세상 안목에서 너를 건져

<15 페이지 로 계속>

전자산업만이 한국인들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미국인

2020년 10월 25일 아침 한국 뉴스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엄청난 업적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연세가 78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5살 어린 나이입니다. 공교롭게도 저의 공대 학생 시절에 가정교사로 있던 풍한 산업 사장 님 바로 옆집이 이병철 회장 댁이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 집에 살았다면 들락날락했던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고등학생이었을 테니까요.

1965년 5월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공업기술과 응용과학 기술연구소(과학 기술연구소)를 창설하는 데 지원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의 전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존슨 대통령은 과학 분야 보좌관 Donald Hornig 박사를 대표로 만든 사절단을 구성하여 한국으로 파견시켰습니다. 이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는 정만영 박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셨고 저도 영광스럽게도 수행원이 되어서 그분들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 전자 공학 연구실 연구원으로 일했고 정 박사님은 전자공학 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회사들을 방문하고 자세한 상황을 분석한 다음 Hornig 박사의 결론은 미국 수행원 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모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전자 산업만이 한국인들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은 자금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자 산업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Hornig 박사 일행이 한국을 떠나자마자 정 박사님과 저는 곧장 반도체 연구를 서둘러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정 박사님은 다른 일들도 많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문헌 조사며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찾아서 구입했지요. 그런데 힘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Solid Diffusion Furnace였습니다. 문제는 P type silicon Substrate에 N type material로 solid Diffusion을 시키는데 몇 시간 동안 하면 몇 micron 두께로 junction이 만들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고 둘째로 Furnace 온도를 몇 도에서 해야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되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과 온도가 24시간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되면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많이 속 태웠지요. 셋째로 2inch diameter fused quartz tube 1.5 meter를 주문했는데 tube가 아니고 solid rod가 와서 깜짝 놀라서 정 박사님에게 알려드렸더니 정 박사님은 씩 웃으시며 “Tube가 아니고 Rod라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다시 Tube를 빨리 사자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웃었지요. 이 연구 결과를 전자 공학회 학회지 3권 2호(1966년 4월호), 그리고 3권 4호(1966년 12월호)에 두 번 발표 했지요. 저는 이 연구에 참여하며 정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그분의 끊임 없는 투지력과 통찰력, 그리고 인내심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Transistor가 무엇인지 Diode가 무슨 요물인지 알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연구야말로 Pioneering research였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에 막강한 전자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보며 나도 동참했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말로 “개 발 소 발”하지 말고 일본처럼 copy부터 해야 한다는 측이 있었지만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개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정만영 박사님이었고 저를 Transistor개발 연구 팀장으로 택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TRW Semiconductor 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도 연구소에서 했던 Transistor 연구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Donald Hornig 박사는 존슨 대통령의 Science 분야 보좌관이라고만 알았는데 그분의 background를 찾아보고 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분은 1944년에 Manhattan Project에 발탁이 되어 Robert Oppenheimer 단장과 함께 근무했고 “X unit”라고 불리는 Firing mechanism을 개발하고 1945년 7월 16일 Manhattan Project, 다시 말하면 원자폭탄을 실험발사하는 Project를 처음으로 극비밀리에 Alamogordo 근방에서 했습니다. 100 피트 높이의 tower를 세우고 거기에 폭탄을 두었는데 그때 날씨가 천둥과 비바람이 불어 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단장이었던 Robert Oppenheimer가 Hornig 박사더러 그 Tower에 올라가서 baby sit을 하라고 명령하여 그대로 했고 날씨가 좀 잔잔해지니까 Bunker로 내려오라고 하고 5시 29분에 switch를 눌러서 실험이 성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성공함으로 새로운 원폭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 후에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 시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 도시에 많은 양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이 두 도시에서 사망했던 사망자들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은 공식적으로 항복한다고 선언했습니다. MacArthur 장군은 일본군을 해체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독려했고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서 RCA가 가지고 있던 Heterodyne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해서 portable Radio를 제작하여 일본 국내에서만 판매하게 권했었는데 Radio가 너무 많이 제작되니까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MacArthur 장군이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 Radio를 미국에 판매하여 일본 경제가 재활 되기 시작했습니다. MacArthur 장군은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잃은 일본에 대하여 선심을 쓰고 싶었고 무엇인가 선한 일들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이 적국이 아니라 우방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MacArthur 장군의 기발한 전술은 625 동란 때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괴뢰군들이 낙동강변까지 남침했을 때 보급로를 차단해서 군수물자를 못 받게 해서 공비로 산속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던 것도 기막힌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Donald Hornig 박사가 이런 영특한 과학자로 그때 우리 한국의 보잘것 없었던 많은 회사들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만이 한국이 살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막강한 반도체 산업 국가로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음을 또다시 감사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그때 Hornig 박사가 한국 방문을 안 했더라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Hornig 박사님이야말로 우리 한국에 큰 꿈을 심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만한 불신자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도 빈정댑니다. 우리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Uncertainty Principle입니다. 분자를 쪼개서 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원자를 쪼개서 원자핵과 중성자와 전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어디에 있다고 딱 그 위치를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런 법칙을

<13페이지 ‘그는 백조였다’ 에서 계속>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특출나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스스로 날개짓을 멈추거나 제한하지 말라” 뭐 그런 부탁이었을까?
레이크비유 애비뉴에 들어서면 마치 이 동네를 지키듯 서있는 높고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아래를 지나게된다. 다 똑같이 땡볕과 어둠과 추위와 뿌리를 뿔뿔히 몰아치는 거센 비바람들을 견디느라 울퉁불퉁 아팠던 흔적들이 그 몸통을 다 덮고 있어 볼때마다 안쓰러운데.
늘 그 그늘아래를 지나노라면 ‘힘드니? 나도 이 변덕스런 세상바람에 시달리느라 자주 아프단다.’
하는것 같아서 일부러 그 앞을 지나며 손을 저어 문안하곤 한다. 과연 마르타에게 라고 해서 비켜 갔을리 없을 태풍이 얼마나 여러번 이었을까. 그럴지라도 애굽으로도 바벨론으로도 기웃거리지 않고, 그의 뒤통의 평생을 다 쏟아 살아 낸 발레리나! ...
치매를 비웃는듯 하늘로 떠난 마르타! 그는 백조였다.

뒤늦은 경의를 표하려니 아뿔싸! 난파를 당해 본 사람에게라야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더니 과연 피할수 없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뵈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 그분께서 맡기신 내 뒤통의 연기!
그것을 하는거다. 작거나 크거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것을 하는거다. 그것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사 “그것이” 비록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성실함으로
올리는 나의 눈물영긴 답이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전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지만, 위치를 확실히 아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물질의 세계 에서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전자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을 과학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저를 팔십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1. 구 하라 2. 찾 아라 3. 문을 두드리라 (마 태 복음 7:7) 라고 권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두 번 기도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Donald Hornig 박사님이 우연히 한국에 오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며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영어이야기 12



이상목

전직 전자공학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2020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19년말에 시작해서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이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편한 생활, 교육, 정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엉망진창이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vaccine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했으니 소피인 신축년 2021년엔 희망을 가져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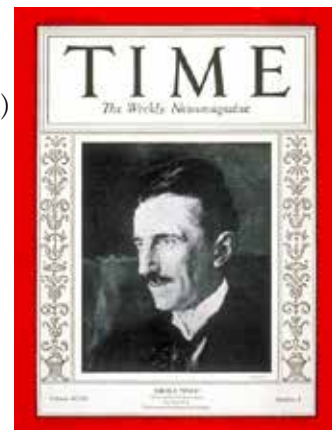
Coronavirus의 공식명칭은 COVID-19으로 Corona Virus Disease 2019 에서 따온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호흡기를 통한 비말(작은 물방울형태)인 respiratory droplet으로 전염되기에, 기침(cough), 재채기(sneeze), 대화를 나눌때 가까이 있으면 전염이 쉽게 되기에, 우리는 3가지 원칙을 지키며 당분간 살아가야 합니다. Wearing a mask(마스크쓰기), Staying 6 feet apart(6ft 떨어져 있기), Avoiding crowd(사람이 모이는곳을 피할것) 등 입니다. Vaccine을 맞아도 완전히 퇴치될때까지는 이 세가지를 계속 지켜야 할것입니다. 새로운 vaccine이나 치료약이 개발될때마다 임상실험에 자원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을 할때, 일부는 개발중인 약이나 vaccine을 투여하지않고 약물이 아닌 인체에 해가없는것을 투여하여, 약물을 투여받은자와 함께 상태를 비교관찰하는데, 진짜약(물)이 아닌 위약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placebo(플러시보)라고 합니다. Placebo를 투여하는것은 연구개발에 필요한데,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공정한 결과를 얻기위해, 투여하는 자와 환자 둘다, placebo를 투여하는지, 진짜 치료약을 투여하는 것인지 모르게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아플때 약도 아니면서 약인척하며 주면, 당사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placebo effect라고 하며, 마음이 신체를 다스릴수도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심하지말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약은 항상 부작용(side effect)이 있어 COVID-19 vaccine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증상이 없거나 약한증상으로 곧 사라지는것이 보통입니다. 접종을 한 부위가 빨게지거나(redness), 부어오른다거나(swelling), 아플수도(pain) 있습니다. 접종한후 사람에 따라, 추위를 느낀다거나(chills), 골치(headache), 피로감(tiredness)을 느낄수도 있다고 합니다.

Droplet의 drop은 물방울을 뜻하는데, let이란 점미사가 붙어서 작은 물방울을 뜻합니다. Stream(냇물) 보다 작은 small stream은 streamlet, 점미사 let 는 몸에 착용하는 것(something worn on)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또한 크기는 작기때문에, 예를 들면 팔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힘을 주기위해 팔에 부착하는 band 같은 것을 armlet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조그마한 만이나 강의 지류등도 armlet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기(산소)의 소중함을 잘알지만 평시엔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듯, 전기도 평소엔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는것중의 하나입니다. 늘 들어오던 전기가 어느날 나가면 그제서야 전기의 고마움을 느끼는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만약에 전기가 어느날 끊겨, 가정집은 물론, 공장에도 몇달간 들어오지 않는다면 COVID-19보다 훨씬 심각한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대두될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먹을것이 조달되지 못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오늘날의 전력 시스템(system)은 세르비아(Serbia) 출신의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의 연구개발에 힘입은바가 큼니다. Tesla는 교류 유도 모터(AC induction motor)를 발명하여, 결정적으로 AC(Alternating Current: 교류)가 DC(Direct Current: 직류)를 이기고 장거리 교류전압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Tesla는 젊었을때 Edison 조수(assistant)



니콜라 테슬라의 75세 생일을 축하한 TIME지 표지

로 잠시 일한적이 있지만, 두사람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Tesla는 무선 (radio)에 관한 특허 (patent)를 1897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美 특허청 (US Patent Office)은 1904 년 Tesla의 특허를 취소하고 우리가 잘 아는 Marconi 에게 radio특허를 내주었습니다. Tesla는 잃어버린 특허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Tesla는 1943년 8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후 얼마되지 않은 그해, 미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Tesla를 무선 발명자(the inventor of radio)로 확정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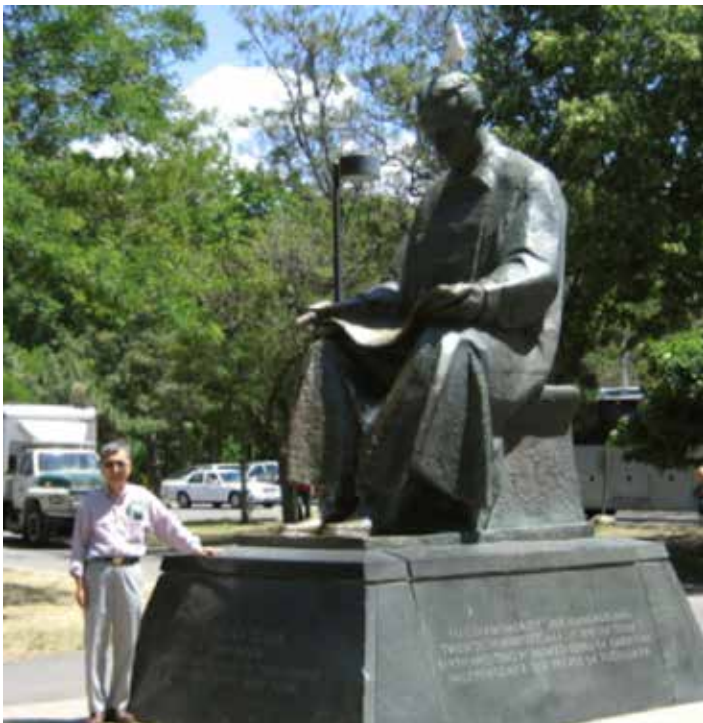
Tesla는 그가 태어난 조국, 유고슬라비아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박물관(museum)이 Yugoslavia(지금의 Serbia:세르비아)의 수도 벨그라드 (Belgrade) 에 있고, 공항이름은 Belgrade Nikola Tesla Airport입니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의 Goat Island (미국쪽)와 Queen Victoria Park (Canada 쪽)에 그의 동상이 각각 있습니다. 그는 또한 물질적인 부(富: material wealth)에는 관심없이 일에만 전력투구를 한 engineer 였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기전에 Tesla의 업적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장의 단위는 그의 이름을 따서 tesla(T)를 사용합니다. Tesla는 작가인 Mark Twain과 친분이 있었으며, remote control로 제어하는 무선 system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발명왕으로 불리우는 Edison은 남의 발명을

도용하는등, 연구 기업가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Tesla가 Edison을 위해 project를 완성했을때도 약속과 달리, 돈 한푼 주지않은 Edison이었습니다. Tesla가 Edison을 떠난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dison은 무려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발명왕이지만 전부다 독창적인 original은 아닙니다. 다른사람의 발명에 개량 증진함으로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좋은 예가 전구(light bulb or incandescent lamp) 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Edison은 전구 발명자가 아닙니다. 다른사람들이 이미 개발하였지만, Edison은 실험실에만 있던 light bulb를 개량해서(좀더 오래 켜질수 있는 전구를 개발) 대량생산으로 가정과 business에 사용할수있게 하였습니다. Edison은 1879년12월 31일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시범(public demonstration)을 보이고, 1880년 백열전등 (incandescent lamp)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러나 1883년, 특허청은 Edison의 특허가, William Sawyer가 개발한 것이라고 판정하여, Edison의 특허는 무효(invalid)가 되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대충 알고있는 상황”을 영어로 간단히 “public perception”으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일반사람이 알고있는 인식정도”를 나타냅니다.

전기자동차의 주요부품인 AC Motor (교류모터)의 연구개발자가 Nikola Tesla로, 전기자동차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 Tesla 자동차가 그의 이름을 딴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War of Current로 불리는 세기의 대결이었던 Edison의 직류(DC)와 George Westinghouse의 교류 (AC)싸움에 Tesla가 Westinghouse의 손을 들어주어 오늘날 교류가 기본 전력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아인슈타인 (Einstein)에게, 이세상에서 당신이 머리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았을때, Einstein은 Tesla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Tesla는 Einstein의 상대성이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Tesla는 일반적으로 외골성격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전등을 켤때나, 모터가 돌아가는 필수 가전제품인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용할때마다 Tesla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2021년은 소띠인 신축년입니다. 모든인류가 겪고있는 COVID-19 사태가 진정되어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Tesla Monument, Niagara Falls(USA side)

선교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의 편지

조성현 선교사와 조정이 사모의 편지입니다. 조성현 선교사님은 2010년에서 나바호 선교를 하실 때 사모님이 이곳 알버커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서 한의사로 봉사하며 선교하시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로 보내오신 최근의 편지 중 하나를 광야 소리에 소개합니다.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선교부)

조성현
선교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벗들에게 그분의 넓고 깊은 사랑을 담아 8번째 편지를 드립니다. 즐겁고 복된 2020년 성탄절을 보내셨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의 은혜가 벗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곳의 많은 사역자들은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께서 저희 부부는 이곳에 남아 저희에게 붙여 주신 현지인 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찬양을 들려주고 식사도 하며 윗놀이도 가르쳐 함께 윗놀이 게임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시간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가정을 돌아가면서 초대하여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들의 가슴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심어 놓지는 못했겠지만 언젠가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곳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 앞에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 오늘 방문한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이 어린 아이들과 떨며 춥고 배고프다며 아내를 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작한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로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 보았다면서 이 나라 돈 3,000 아프가니면 난로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탄과 나무를 조금 사주면 5,000 아프가니면 도움을 조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5,000 아프가니면 달러로 \$60 정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도움을 주자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에 난로와 나무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에 비슷한 형편의 20 가정을 선정해서 난로와 석탄, 나무 그리고 쌀과 밀가루, 콩 등을 사서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나누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저 산 동네에 정말 많습니다.

이곳은 여자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들고 고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들도 힘이 들지만, 여인들에게 정말 힘이 든 곳입니다. 제가 만나는 여자 환자들을 볼 때 평균 40세 정도만 되면 손가락들이 조금씩 휘어지며 통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60 이 넘으면 한국인 90 세는 되어 보입니다. 온몸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오늘 70 이 되신 여자분을 치료했는데 머리에 손을 놓고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예 잘 응답해 주십니다” 이 여자분 이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즐겨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요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며 당신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예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들어 거의 매일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카불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많게는 하루에 5건 테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아침, 점심 식사 중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테러의 장소는 경찰, 군부대 등 특별한 곳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도 장소 불문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소형 자동 로켓포 23 발을 발사하여 테러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경찰 검문소를 지나갈 때면 자살 폭탄 테러나 자동차 폭탄 테러 혹은 총기 난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부가 이곳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분께서 저희를 지켜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벗들의 기도 힘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분열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참 빛 되시고 참 평화이신 그분으로 인해 속히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저희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이 저희와 동역자분들에게 부어져 저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에 곧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일 년 내내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와 물질 그리고 이모저모로 동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 년에도 지속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의 비전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1. 한의 사역과 간호 사역을 통하여 그분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을 증거 할 수 있도록.
2. 증거 할 수 있는 완전한 현지 언어를 속히 구사 할 수 있도록.
3. 무얼 먹든 어딜 가든 건강히 해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테러로부터 안전하도록
4. 우리들과 동일한 회사에 속해 있는 현지인 가정들이 숨죽이며 신앙을 지킬 때 믿음과 소망 잃지 않도록.
5. 미국에 있는 두 아들 영대, 영준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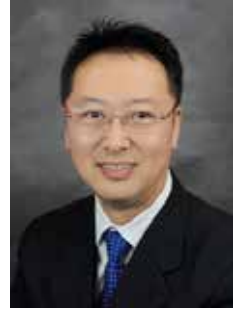


생활상식

2021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3가지

이한주

Financial Professional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몹시 어려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Life Insurance

흔히들 내가 죽어서 받는 것이 생명보험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한 가정의 가장이나 배우자가 삶을 마감한다면 가정 경제의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소한 자녀들의 양육에서 대학교육까지의 의무를 다른 배우자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을 소유한 가정의 남은 모기지, 대학교 융자금, 카드빚, 비즈니스 채무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분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100세 시대에 너무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남게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 더 많은 노후자금에 필요할 것이고 중병 또는 만성질환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다면 만만치 않은 의료비용은 나의 몫이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생명보험은 죽어서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사망 시 가정을 보호하는 장치와 생존 시 여러 병에 걸려 미리 선 지급받아 사용이 가능한 Living Benefit 기능, 복리 이자를 받고 자라나는 이자에 대해 택스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시기에 더욱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준비가 된 분들은 갖고 계신 정관을 담당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자를 제대로 받는 지, 위험한 쪽으로 투자가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 불 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는 승용차도 오래전에 생산된 것들은 다양한 옵션이 없듯이 보험 상품 역시 오래전에 준비하신 것들은 많은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은퇴 연금

누구나 경제활동을 멈추고 노후의 생활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정부에서 받는 사회적 연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2033년도가 되면 받기로 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택스를 내는 인구와 연금 수혜 혜택을 받는 노년층의 비율이 맞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국민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인데 401K, IRA, 403B, Sep IRA 등 이 모든 것들은 택스 코드로 세금 유예와 절세 혜택을 주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택스를 노후에 내야 하는 것이지만 쓸쓸한 노후의 삶이 아닌 준비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저축을 권장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또 ANNUITY라는 연금 상품은 목돈을 맡기는 단점이 있으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연금을 평생 보장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3. TAX 절세플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지도자의 세금인상안을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참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부채로 남게 된 수많은 경제적 지원이 향후 우리의 세금 납부 의무로 남게 되고, 택스는 결국 나의 부를 축적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세금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지?

택스를 안 내는 방법은 없는지?

택스를 더 많이 낸다는 것은 나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택스를 줄이거나 안 내면서 분산 투자를 통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Han Ju Lee ,
213) 321-8787
CA Lic.# 0K41143

Financial Professional
carlitos3840@gmail.com
NM Lic.#17684619

사진미술

앤설 애덤스의 뉴멕시코 사진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앤설 애덤스(Ansel Adams, 1902-1984)는 20세기의 미국 출신의 유명한 풍경 사진작가이다. 애덤스는 사진작가로서의 예술 활동 외에도 미국 서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환경보호 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애덤스가 1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작은 카메라를 선물로



Ansel Adams

그에게 주었는데 그의 사진작가의 재능이 그때부터 키워지기 시작했다. 1920 년대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시에라 클럽의 여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국립공원의 인상적인 풍경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1930 년경 그는 사진에 평생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사진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사진작가 활동에 열중했다. 1935년까지 애덤스는 사진에 관련되는 기사를 많이 발표했는데 1935년 런던의 스튜디오 출판사를 통해 발간된 'Making a Photograph'은 사진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모은 책이 됐다. 그후 자연 경관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표에 관한 저술을 많이 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시에라 클럽에서 출판한 'This Is the American Earth' (1960)였다. 애덤스의 다른 주요 저서로는 'My Camera in the National Parks'(1950)와 '서남부 사진(Photographs of the Southwest)'(1976년), '포트폴리오(The Portfolios)'(1977) 등이 있다. 1941년, 연방정부 국립 공원 관리청은 부서의 신축 건물 내부를 여러 장의 벽화 크기의 사진으로 장식하려는 프로젝트를 세웠다. 국립 공원, 인디언 보호구역, 그리고 서부지역 명소를 찍은 사진을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준비해서 제출하는 계약을 애덤스가 맺고 그의 친구 세드릭과 그의 아들 마이클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뉴멕시코에도 오게 되었다. 그는 뉴멕시코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미술가 조지아 오키프와 타오스의 매빈 다지 루한 등과의 친분으로 뉴멕시코를

다녀간 일이 있어서 이곳 방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1941년 11월1일은 그가 차마벨리에서 에스파놀라를 향해 차로 달리던 중이었다. 저녁 해가 떨어지기 직전 허난데스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눈 덮힌 산위로 달이 떠오르는 경치를 보게 된다. 그는 도로변에 차를 급히 세우고 길가에 있는 교회와 묘지에 십자가에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 (1941)

비치는 저녁 햇빛이 빠르게 희미해지는 숨 가쁜 순간을 검은 하늘로 떠오르는 달과 함께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의역: 뉴멕시코 허난데스에 떠오르는 달)

라고 제목이 붙여진 사진이 되었다. 이 사진은 이후 약 40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인화되어 판매되었고 애덤스의 재정적 수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보통 15인치x20인치 크기로 1,300장이 넘는 reprint를 만들었다.

앤설 애덤스(Ansel Adams)의 사진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소더비 네트 경매에서 68만5천5백 달러에 팔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 사진은 산타페에 있는 앤드류스미스 갤러리에서 1941년 프레임 한 9x12inch 크기의 사진이라고 소더비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 뉴멕시코 메가진에서는 앤설 애덤스(Ansel Adams)의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 사진을 소개하였는데 뉴멕시코에 사는 Ed Trujillo라는 독자가 잡지사에 투고한 글을 함께 소개했다. 아래에 독자 Ed Trujillo의 글을 번역/요약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앤설 애덤스의 사진을 보고 뉴멕시코의 아름다움을 의식한 독자의 글이다. 고향을 떠나 멀리가 있을때 뉴멕시코의 아름다움을 애덤스의 사진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다.

제목: Close to Home

저는 뉴멕시코 차마 리버 벨리(Chama River Valley)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목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 목장은 에스파놀라 (Española)에서 북쪽으로 12 마일, 허난데스 (Hernandez)와 아비큐(Abiquíu) 사이에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차마강, 서쪽으로는 산에 접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많은 저의 친구들처럼 저역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만을 원했었습니다. 제가 에스파놀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마침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로 이사하는 삼촌을 따라 가게 되어 뉴멕시코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사데나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였고 45년간 일하고 드디어 은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파사데나 서점에서 앤설 애덤스의 사진 모음을 집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아담스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인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 제목의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성찬식을 드린 교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묘지는 조부모님이 묻혀있는 곳이고, 사진 오른쪽에 있는 집은 대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알게 된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은

지역소식

넷플릭스 스튜디오 확장 계획 발표

넷플릭스가 알버커키 스튜디오를 확장하여 북미 최대의 영화제작 중심지로 만들어 뉴멕시코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23일 보도 되었다.

‘넷플릭스(NETFLIX)’는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이름이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회사로서 회원들에게 오리지널 시리즈,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알버커키 스튜디오를 2년전에 구입한 이 회사는 메사 델 솔에 있는 30 에이커의 기존 자산에 300 에이커를 더하고 시설을 확장하여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속 가능한 영화 제작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투자로 뉴멕시코주에 1000개의 생산직과 1500개에 가까운 건설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라는 이름의 화가였는데, 우리 목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나는 고교 시절 스쿨버스에 탄 몇몇 친구들이 항상 아비큐에서 Georgia 집의 잡일을 해주고 여분의 용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나는 그들이 누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안타까운점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선생님도 앤설 애덤스나 조지아 오키프의 이름을 얘기해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뉴멕시코의 풍부한 역사와 뉴멕시코가 미국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 제가 지금은 은퇴하고 알버커키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뉴멕시코의 매우 흥미로운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New Mexico Magazine /by Ed Trujillo/ June 2016.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3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교회 Church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 단요가 Dahn Yoga -----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 리커스토어 Liquors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 부동산 Realtors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세탁소 Dry Cleane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 주택용자 Loan Officer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 -----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치과 Dental Clinic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 호텔 Hotel -----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1년 1/2월호
발행일 : 2021.1.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 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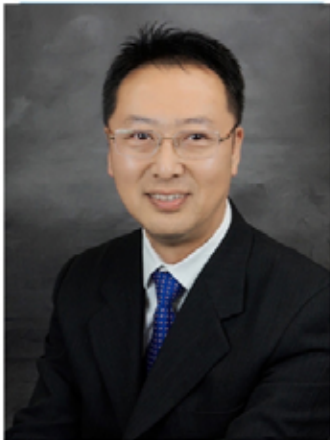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텍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